

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

- 11일부터 30일간 총 1,373명 투입...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(월)부터 12월 20일(금)까지 30일간(공휴일 제외)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
○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·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*이 참여한다.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,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, 총 1,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.

* 국토교통부(기술안전정책관), 5개 지방국토관리청(서울,원주,대전,익산,부산)
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가철도공단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
국토안전관리원

□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* 타설·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,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,

* 일일 평균기온 4℃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

○ 특히,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·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.

○ 한편,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1,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이와 함께, '24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·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,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.

-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·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·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“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”면서,
 - “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동주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훈 (044-201-4593)
			주무관	서경원 (044-201-3586)

